

# 러시아투자 환경 및 장애요인 분석연구 : FDI(외국인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진용섭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 I. 서론
- II. 러시아 투자환경 분석(FDI를 중심으로)
  - 1. 한국의 對러시아 투자동향
  - 2. Brainard(1997)의 모형을 활용한 FDI 장애요인의 분석
    - 가. 분석모형
    - 나. 변수추정 및 분석
- III. 결론

## < 초 록 >

한국과 러시아의 교류는 1990년 9월 정식수교가 이루어진 이후, 20여년이 지난 2012년 현재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발전과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러시아를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시행했던 1991년과 가장 직접투자가 활발했던 2009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의 대 러시아 직접투자는 투자금액상으로 약 25 배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또한 2012년 10월 기준으로 러시아가 한국의 10 번째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러시아는 이제 한국에게는 중요한 경제 협력대상국이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아직까지 자유경제체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법률, 세제, 행정절차 등 사회질서와 관련한 사회간접자본의 미흡한 부분들은 러시아 입장에서 외국인의 해외직접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반듯이 개선해야할 과제이다.

본 연구는 2012년 현재 한국의 대 러시아 투자동향의 흐름을 여러 공신력이 있는 자료를 통해 분석해 보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이 러시아에 투자를 할 때, 어떠한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직접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Brainard(1997)의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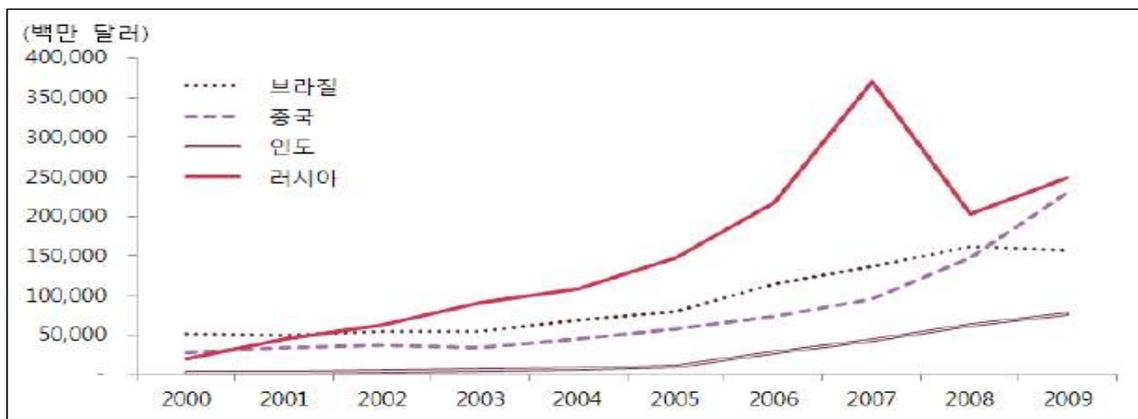
러시아는 자원부국으로 앞으로 발전의 여지가 충분한 만큼, 한국은 대 러시아 FDI를 위한 적절한 전략수립과 현지진출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I. 서론

러시아는 영토의 크기가 17,098,242m로<sup>1)</sup> 세계에서 제일 크며, 인구는 약 142,517,670명으로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인구<sup>2)</sup>를 가지고 있어 내수시장도 상당한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2012년 기준으로 GDP가 2조 218억 달러로 세계 9위<sup>3)</sup>를 기록하였으며, GDP 1인당기준은 1만 4,246\$로 46위<sup>4)</sup>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GDP는 러시아의 기반 산업인 석유, 가스 및 금속 등 자원부문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원자재가격의 변화가 러시아경제에 미치는 과급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1]에서와 같이 BRICs<sup>5)</sup> 4개국 중 자원관련 산업의 비중이 높은 러시아는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을 제치고 제 1의 해외직접투자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에 대한 경제의존비중이 높은 러시아는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경제발전 및 외환의 유입으로 해외투자여력은 늘어났으나, 제조업 등 기초산업기반이 부실하여 내수투자처가 부족한 실정이다.<sup>6)</sup> 이러한 기초산업기반 시설이 부족한 점을 노려 한국기업들이 자동차와 식료품 생산과 같은 제조업분야에 진출하였으나,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그림 1] BRICs 국가들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주: Stock 기준

출처: UNCTADstat, KOTRA, 『러시아의 해외투자 동향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2011.06

한국과 러시아의 교류는 1990년 9월 정식수교를 계기로 이루어졌지만, 본격적인 교역과 투자는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 연방이 출범한 1992년 이후부터 이루어졌다.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액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07년에 발발한 글로벌 유동성 위기로 잠시 투자가 주춤하기는 하였으나, 점차 회복추세에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2011년 12월 WTO 각료회의에서 가입이 공식 확정되었고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와 상원의 의회회의를 거쳐 세계에서 156번째로 WTO가입국이 되었으며, 향후 관세인하, 러시아내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 그리고 러시아 무역에 대한 신뢰감 등이 향상<sup>7)</sup>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에서와 같이 WTO의 가입에 따라 러시아는 평균 10%인 수입관세를 7.8%까지 낮추어 한국기업들에게 수출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며, 특히 일반 공산품의 관세는 9.5%에서 7.3%로, IT제품은 평균 5.4%에서 0%로 각각 떨어질 전망이며, 철강분야의 관세율은 기존의 15-20%에서 5-7%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sup>8)</sup> 이와 같이 러시아의 수입

관세 장벽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향후 러시아와 한국의 교역과 투자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발맞추어 한국의 대 러시아투자에 대한 적절한 전략수립을 통해 앞으로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1> 러시아의 상품별 수입관세 인하 스케줄

품목	현재 실행세율	가입 첫째 세율	최종 양허세율	이행 기간
승용차	30%	25%	15%	2019년
자동차부품	5-15%	5-15%	0-10%	-2018년
TV부품	10%	10%	0%	2015년
합성수지	5-10%	5-10%	4-6.5%	2013-2014년
담배	30%	30%	2€/1000개	2015년
냉장고	20%	20%	5-13%	2015-2017년
철강제품	15-20%	5-15%	5-7.5%	즉시-2015년
의료기기	10%	10%	5%	2015년
플라스틱	10-20%	10-20%	5.5-6.5%	2015-2017년
제지	15%	5%	5%	즉시
커피	15%	15%	10%	2016년
쥬스	15%	15%	8%	2015년
의류	10%	10%	5-8%	2014-2015년
가방	15-20%	15-20%	6.5-10%	즉시-2017년

출처: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6950226](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6950226), 검색일- 2012.11.24

지금까지 많은 한국기업들이 직접, 포트폴리오 혹은 파이낸싱<sup>9)</sup> 과 같은 투자형태를 통해서 러시아에 투자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투자 장애요인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대 러시아 투자동향의 흐름을 Brainard(1997)의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해보고 러시아의 FDI시에 어떠한 장애요인이 있는지를 추정하는데 있다. 그리고 본 연구가 향후 러시아에 투자하려는 한국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초연구자료로 사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II. 러시아 투자환경 분석 (FDI를 중심으로)

### 1. 한국의 對러시아 투자동향

러시아는 2012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의 제 10위 수출 대상국<sup>10)</sup> 으로 성장하였으며, 1990년 9월 국교를 수립한 이후 양국의 교역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러시아와의 교역액이 [표 2]에서와 같이 약 211억 5,700만 달러에 이르렀다. 한국의 수출대상 국가별 순위에서는 2011년에 103억 500만 달러로 11위<sup>11)</sup> 를 기록하였고 2012년 10월에 93억 8,700만 달러로 10위의 수출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교역규모가 44.8%가 감소한 99억 8,3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2009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교역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사상최대 교역액을 기록하였다.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 교역액을 통해서 2012년의 예상 교역액을 분석해 본 결과 2011년도와 비슷한 교역액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품수지<sup>12)</sup> 는 2002년 이후 2006-2008년까지와 2012년을 제외하고는 지속

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최근 10년간 연도별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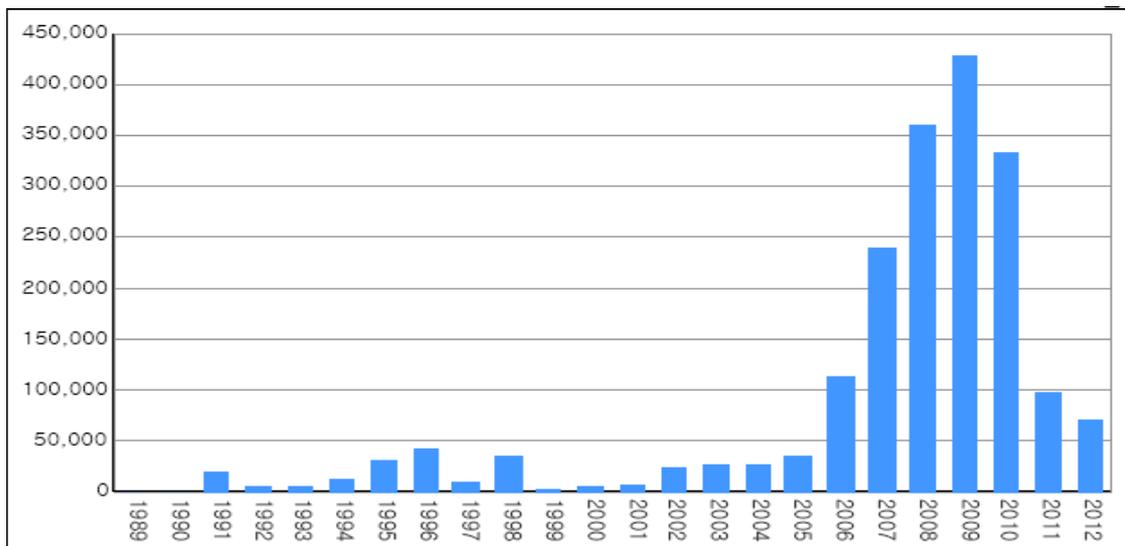
연도	수출		수입		상품수지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2	1,066	13.6	2,218	14.9	-1,152
2003	1,659	55.7	2,522	13.7	-863
2004	2,339	41	3,671	45.6	-1,332
2005	3,864	65.2	3,937	7.2	-72
2006	5,179	34	4,573	16.2	<b>606</b>
2007	8,088	56.2	6,977	52.6	<b>1,110</b>
2008	9,748	20.5	8,340	19.5	<b>1,408</b>
<b>2009</b>	<b>4,194</b>	<b>-57</b>	<b>5,789</b>	<b>-30.6</b>	-1,595
2010	7,760	85	9,899	71	-2,140
<b>2011</b>	<b>10,305</b>	<b>32.8</b>	<b>10,852</b>	<b>9.6</b>	-547
<b>2012(1-10)</b>	<b>9,387</b>	<b>7.5</b>	<b>9,360</b>	<b>6.8</b>	<b>27</b>

출처: 한국무역협회

[그림 2]와 <표 3>에서 보듯이 한국의 대 러시아 해외직접투자는 2005년까지 활발하지 않았던 러시아 투자가 2006년에 연중 투자금액이 1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2009년에는 4억 2,787억 달러를 기록하여 사상 최대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글로벌 유동성 위기의 여파로 2010년부터 투자규모가 감소하여 2011년에는 다시 1억 달러 이하로 투자규모가 감소하였고 2012년 상반기 투자액에 근거하여 2012년도 예상 투자액을 예측해 보았을 때, 작년대비 투자규모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한국의 대 러시아 연도별 해외투자현황, 2012년 6월 말까지의 투자실적 반영

(단위: 건, 개, 천 달러)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표 3> 한-러 수교이후 한국의 대 러시아 연도별 해외투자현황 ,2012년 6월 말까지의 투자실적 반영

(단위: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1990	4	0	8,781	0	0
1991	9	5	9,539	14	17,244
1992	17	7	7,386	11	3,247
1993	28	12	4,943	16	3,041
1994	37	20	52,427	33	11,977
1995	29	24	51,618	57	30,806
1996	41	12	72,037	38	41,356
1997	24	7	33,642	21	8,423
1998	15	4	34,771	10	35,365
1999	10	7	3,376	13	830
2000	16	11	11,001	26	4,002
2001	16	9	21,191	38	6,889
2002	23	9	46,571	42	23,998
2003	35	13	10,293	43	24,363
2004	29	14	90,485	73	25,340
2005	49	22	69,312	85	34,717
<b>2006</b>	47	18	131,685	80	<b>113,638</b>
<b>2007</b>	47	18	131,685	80	<b>113,638</b>
<b>2008</b>	120	51	518,854	186	<b>358,433</b>
<b>2009</b>	173	29	722,596	264	<b>427,873</b>
<b>2010</b>	96	18	232,164	171	<b>333,990</b>
2011	79	28	130,829	72	69,579
2012	48	5	63,897	72	69,579

주1: 업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기준이며, 신고건수는 공동투자 건수와 증액건수를 포함함.

주2: 송금횟수는 송금시마다 1건으로 집계되나, 동일 월내 2회 이상 동일 현지법인 앞 송금 시 1건으로 집계됨.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의 대 러시아 해외직접투자는 2012년 9월말까지 총 19억 1,291만 달러가 투자되었고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부문은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제조업부문에 투자금액이 11억 2,36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투자금액의 58.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에 따른 업종별 순위를 보면 제조업에 이어 도소매업, 광업, 농업·임업 및 어업 그리고 부동산 및 임대업의 순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제조업부문에서는 <표 5>에서 보듯이 2012년 9월 말 현재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가장 많은 투자액인 4억 7,275만 달러가 투자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전자제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의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가장 많은 이 3업종의 투자는 전체 제조업투자의 71.2%에 달한다.

<표 4> 업종별 한국의 대 러시아 투자실적, 2012년 9월 말까지의 투자실적 반영

(단위: 건, 개, 천 달러)

업종 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86	57	185,349	51	134,642
광업	42	7	218,531	66	150,381

제조업	331	120	1,613,989	477	1,123,60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	1	3,594	5	2,849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	2	627	2	627
건설업	57	31	54,339	73	32,871
도소매업	167	76	297,308	204	246,940
운수업	41	18	34,168	43	26,047
숙박 및 음식점업	35	8	101,605	52	51,84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5	13	63,897	45	37,853
금융 및 보험업	1	1	20,879	1	20,879
부동산 및 임대업	121	25	150,222	181	76,21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	7	10,893	12	5,56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	1	484	1	18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	1	45	1	5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	5	3,013	10	1,63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	2	1,300	8	710
<b>총</b>	<b>1,047</b>	<b>375</b>	<b>2,760,242</b>	<b>1,532</b>	<b>1,912,912</b>

주1: 업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기준이며, 신고건수는 공동투자 건수와 중액건수를 포함함.

주2: 송금횟수는 송금시마다 1건으로 집계되나, 동일 월내 2회 이상 동일 현지법인 앞 송금 시 1건으로 집계됨.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표 5> 제조업종별 한국의 대 러시아 투자실적, 2012년 9월 말까지의 투자실적 반영  
(단위: 건, 개, 천 달러)

제조업종 대분류	신고건수	신고 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b>식료품 제조업</b>	<b>47</b>	<b>12</b>	<b>148,301</b>	<b>58</b>	<b>125,637</b>
음료 제조업	4	2	4,480	9	1,054
담배 제조업	4	1	151,483	26	102,197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10	5	3,456	12	689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9	19	10,235	68	4,557
가방, 가죽 및 신발 제조업	4	3	3,652	4	3,4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31	11	23,222	39	18,03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	1	367	1	1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	0	900	0	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5	4	193,850	8	18,60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1	5	3,204	19	2,36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6	1	1,662	6	1,66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7	3	8,104	14	5,598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7	4	13,256	8	8,916
1차 금속 제조업	6	4	42,661	10	23,86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와)	10	4	4,564	11	4,171
<b>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b>	<b>30</b>	<b>13</b>	<b>203,375</b>	<b>34</b>	<b>201,914</b>
의료, 정밀, 광학기계 및 시계 제조업	3	1	434	3	434
전기장비 제조업	14	5	120,393	14	98,24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	4	23,138	11	22,261
<b>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b>	<b>71</b>	<b>9</b>	<b>639,265</b>	<b>104</b>	<b>472,750</b>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4	7	12,545	11	6,537
가구 제조업	5	0	631	0	0
기타 제품 제조업	4	2	811	7	572
<b>총</b>	<b>331</b>	<b>120</b>	<b>1,613,989</b>	<b>477</b>	<b>1,123,609</b>

주1: 업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기준이며, 신고건수는 공동투자 건수와 중액건수를 포함함.

주2: 송금횟수는 송금시마다 1건으로 집계되나, 동일 월내 2회 이상 동일 현지법인 앞 송금 시 1건으로 집계됨.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2012년 9월말 기준으로 러시아 투자기업을 규모별 투자건수로 따졌을 때, 중소기업이 62.7%, 대기업이 30.2%를 차지하였다. 이는 도소매업 등 서비스 분야와 소규모 자동차 부품, 가정용품 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였기 때문이다. 금액기준으로는 대기업이 75.8%, 중소기업이 23.8%를 각각 차지하였다. 투자자규모별 투자건수 비중은 <표 6>에서와 같이 중소기업, 대기업, 개인, 개인기업 순이었으며, 투자금액 비중은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개인기업 순이었다. 누계액 기준으로 러시아의 건당 평균투자금액은 183만 달러이며,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은 453만 달러, 중소기업은 69만 달러이다. 2009년의 규모별 주 투자자에 관한 연구결과<sup>13)</sup>와 비교해 보았을 때, 2012년에는 전체 비율에서 대기업의 투자건수와 투자금액의 비율이 소폭 줄고 중소기업의 투자건수와 투자금액의 비율이 소폭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투자가 더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한국의 대 러시아 투자자의 규모, 2012년 9월 말까지의 투자실적 반영

(단위: 건, 개, 천 달러)

투자자규모 메트릭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b>대기업</b>	<b>317</b>	<b>110</b>	<b>1,837,892</b>	<b>428</b>	<b>1,449,466</b>
<b>중소기업</b>	<b>657</b>	<b>233</b>	<b>906,079</b>	<b>1,031</b>	<b>455,877</b>
개인기업	20	11	3,930	20	953
개인	51	20	12,058	51	6,483
기타(비영리단체 등)	2	1	284	2	134
<b>총</b>	<b>1,047</b>	<b>375</b>	<b>2,760,242</b>	<b>1,532</b>	<b>1,912,912</b>

주1: 업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기준이며, 신고건수는 공동투자 건수와 중액건수를 포함함.

주2: 송금횟수는 송금시마다 1건으로 집계되나, 동일 월내 2회 이상 동일 현지법인 앞 송금 시 1건으로 집계됨.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 2. Brainard(1997)의 모형을 활용한 FDI 장애요인의 분석

러시아는 1990년대에 소련의 해체와 대규모 민영화 과정을 통해서 자유경제체제를 도입한지 불과 약 20년 밖에 되지 않았으며, 현재 자유경제체제가 점차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FDI투자에 따른 많은 장애요인과 리스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러시아에서 어떤 장애요인이 FDI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기존의 연구결과<sup>14)</sup>에서 사용한 Brainard(1997) 모형을 활용하여 자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 가. 분석모형

분석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Brainard(1997)의 모형을 통해서 FDI를 결정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FDI_i = f(X_i, e_i)$$

여기에서  $FDI_i$  는  $i$  지역의 러시아 특정지역에 대한 외국인 FDI이며,  $X_i$  는 각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특성변수이다.  $e_i$  는 관측할 수 없는 지역  $i$  의 특성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Brainard(1997)의 모형을 통해서 단지 변수와 외국인 FDI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것이므로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  $i$  를 러시아의 개별지역이 아닌 러시아 전체로 상정하여 분석을 할 것이며, 러시아의 각 지역별 변수현황과 상기의 식을 이용한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은 생략하도록 한다.

한 기업이 투자를 어느 국가에 FDI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고려하게 되는 요인에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는 투자국가의 시장규모이다. 투자자에게 시장규모는 결국 그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를 의미하므로 투자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서 이 시장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러시아의 GDP와 인구를 사용할 것이며, 통계적으로 정(positive)의 부호를 가지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시장규모가 크면 클수록 투자자는 그 국가에 투자할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FDI가 제 3국이나 본국으로 수출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가 아니라 그 국가의 시장을 겨냥한 투자라면 더 큰 정(positive)의 값을 갖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한 투자 결정요인으로서 투자국가의 임금수준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요인이 동일하다고 할 경우, 높은 임금수준은 투자결정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음(negative)의 부호를 가지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임금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러시아의 전체산업부문의 평균임금을 활용할 것이다.

세 번째 투자 결정요인 변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본을 모형에 도입하고자 한다. 즉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가 FDI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인적자본의 풍부함을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으므로, 이 변수는 정(positive)의 부호를 가질 것이다. 특히 이 변수는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보다 큰 정(positive)의 값을 갖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인적자본의 변수로서 경제활동인구의 통계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네 번째 투자결정요인으로서 투자국가의 인프라 수준을 빼놓을 수 없다. 투자하고자 하는 국가의 철도, 항만, 도로 등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것은 투자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투자하고자 하는 국가의 철도, 도로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다른 요인이 동일하다면, 기업은 다른 국가보다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국가에 투자할 것이다. 인프라 수준 역시 정(positive)의 값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인프라 수준에 관한 변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변수추정을 보다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러시아의 포장도로(자동차도로) 길이의 가중 평균치를 사용할 것이다.

다섯 번째 투자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정책변수를 생각할 수 있다. 즉 투자국가의 법인세라든지 경제개발의 여부, 행정절차의 신속성 및 투명성 등이 투자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변수들 역시 정(positive)의 값을 갖게 될 것이다. 정책변수에 관한 변수로서 본 요소에서는 정치, 경제, 언론, 정부공무원 및 법제도와 관련된 사법부 등 그 국가의 전반적인 부문에 대한 부패정도를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CPI)<sup>15)</sup>를 활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방정도이다. 투자국가가 어느 정도 개방되어 있는지도 투자에 영향을 준다. 외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개방화가 잘 된 국가에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된다. 따라서 개방화정도 역시 외국인직접투자와는 정(positive)의 관계가 예상된다. 여기서 개방정도는 총수출입/GDP를 사용하여 개방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상기에서 열거한 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사용변수 설명

변수	변수설명	예상부호
시장규모	GDP, 인구	+
임금수준	전체산업부문의 평균임금	-
인적자원	경제활동 인구	+
인프라 수준	포장도로 길이의 가중평균	+
정부정책 변수	부패인식지수(CPI)	+
개방정도	총수출입/GDP	+

출처: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작성

#### 나. 변수추정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Brainard(1997)의 모형을 활용하여 FDI 장애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을 위하여 상기의 <표 7>과 같이 변수를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표준분석도구를 설정하였다. 이 표준분석도구를 활용하여 FDI와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이유로 많은 한국기업들이 러시아시장에 성공적인 진출을 하지 못하였는지에 관한 장애요인을 추정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변수인 시장규모와 FDI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러시아의 GDP와 인구규모를 활용하여 러시아 FDI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한다. 어떤 국가에 직접투자를 할 때, 그 나라의 내수시장을 가늠하게 하는 인구와 경제규모를 가늠하게 하는 GDP수치는 직접투자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러시아는 <표 8>과 <표 9>에서와 같이 2012년도 기준으로 GDP규모는 세계에서 9위인 2조 21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인구는 약 1억 4,251만 명으로 역시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장규모의 표준분석도구인 GDP와 인구만을 놓고 FDI의 적절성을 평가할 경우, 러시아는 FDI를 위한 긍정적인(positive) 조건을 갖춘 시장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에너지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는 러시아경제 발전의 장애요인 중 하나로 들 수 있

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석유 및 가스 부문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가격 변동에 취약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석유 및 가스 부문의 GDP 비중은 2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의 수출, 재정수입 및 투자 비중이 각각 55%이상을 차지하는 등 에너지 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아 국내경기가 세계경제 및 원자재가격에 의해 크게 좌우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표 8> 2012년도 국가별 GDP규모와 순위

(단위: 달러)

순위	국가	GDP
1	미국	15조 6,096억
2	중국	7조 9,917억
3	일본	5조 9,809억
4	독일	3조 4,787억
5	프랑스	2조 7,120억
6	영국	2조 4,526억
7	브라질	2조 4,497억
8	이탈리아	2조 669억
<b>9</b>	<b>러시아</b>	<b>2조 218억</b>
10	캐나다	1조 8,045억
15	대한민국	1조 1,635억

출처: IMF

<표 9> 2012년 7월 기준 국가별 인구규모와 순위

(단위: 명)

순위	국가	인구
1	중국	1,343,239,923
2	인도	1,205,073,612
3	미국	313,847,465
4	인도네시아	248,645,008
5	브라질	199,321,413
6	파키스탄	190,291,129
7	나이지리아	170,123,740
8	방글라데시	161,083,804
<b>9</b>	<b>러시아</b>	<b>142,517,670</b>
10	일본	127,368,088
25	대한민국	48,860,500

출처: CIA

두 번째로 임금수준 변수와 FDI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러시아의 전체산업부문의 평균임금의 연도별 변동추이를 이용하여 러시아 FDI의 영향을 고찰해보겠다. 기업이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서 임금은 기업의 지출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정항목으로 임금의 가파른 상승은 회사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외국기업이 직접투자 시에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변수로 작용한다. <표 10>에서와 같이 러시아는 2005년에 평균임금이 8,555루블 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17,290루블로 3년 만에 약 2배로 임금이 상승하였다. 따라서 러시아의 임금은 FDI에 부정적(negative)인 작용을 하고 있음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t;표 10&gt; 러시아 전체산업부문 평균임금의 연도별 변동추이

(단위: 년, 루블)

연도	임금
2005	8,555
2006	10,634
2007	13,593
2008	17,290

주: 측정을 위하여 사용된 산업부문은 국제노동기구에서 정한 A-Q까지의 16개 산업부문으로 한정함.

출처: 국제노동기구

세 번째로 인적자본 변수와 FDI의 관계를 고찰하겠다. 본 고찰에는 15세부터 72세까지의 러시아 경제활동인구의 연도별 변동추이를 활용한다. 고찰을 위한 비교자료로 이것을 이용하는 이유는 러시아와 비슷한 경제규모와 인구를 동시에 만족하는 국가의 부재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연도별로 변동되는 경제활동인구의 증감을 통해서 러시아의 인적자본이 FDI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겠다. 경제활동인구는 FDI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변수이다. 직접투자를 통한 시장진출 시,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진출기업에게 풍부한 인력자원의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표 11>에서 보듯이 러시아의 경제활동인구는 1999년에 총 인구비중 대비 47.7%에서 약 10년 후인 2008년에는 그 비중이 53.4%로 증가하였고, 경제활동인구는 약 603만 명이 증가하였다. 즉 인적자본요소는 러시아 FDI에 매년 꾸준히 긍정적(positive)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lt;표 11&gt; 러시아 경제활동인구의 연도별 변동추이

(단위: 년, 천 명, %)

연도	총인구	경제활동인구	활동인구비율
1999	146,328	69,731	47.7
2002	143,097	71,919	50.3
2003	144,168	72,391	50.2
2004	143,474	72,950	50.8
2005	142,754	73,432	51.4
2006	142,487	74,146	52.0
2007	142,115	75,159	52.9
2008	141,956	75,756	53.4

주: 경제활동인구의 측정 연령범위는 15-72세임.

출처: 국제노동기구

네 번째 변수는 인프라 수준으로, 이것과 FDI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표준설명도구로 러시아의 연도별 포장도로길이의 가중 평균치의 변동추이를 활용하여 고찰하겠다. 인프라는 그 국가의 기반시설로서 도로, 항만, 발전소, 전선, 상하수도, 금융시스템 등을 총칭하여 말하는 것으로 추이의 편이를 위하여 인프라의 요소 중 포장도로(자동차도로)의 길이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표 12>에서와 같이 러시아의 포장도로(자동차도로)는 1992년부터 2009까지 17년 동안 약 81,000킬로미터가 늘어났다. 따라서 인프라 수준은 FDI에 긍정적(positive)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그러나,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토면적을 가지고 있어, 면적 대비 도로의 길이와 비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아직까지 열악한 수준이며,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로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FDI기업들이 주로 대도시에 기반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후진적인 금융시스템이 러시아 경제발전에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시스템 중 특히 후진적인 은행산업은 경제성장의 주요 걸림돌인 동시에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는 한계요인이 되기도 한다.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기업의 투명성 부족과 담보제도의 미비 등으로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상관습과 법규, 감독제도 도입의 지체 그리고 은행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의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러시아의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은 주로 은행과의 특수 관계(지배주주)를 가진 대기업을 위주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 부족, 담보 부족, 신용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대출 취급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2> 러시아의 연도별 포장도로(자동차도로) 길이의 가중 평균치의 변동추이  
(단위: 천 킬로미터)

연도	포장도로 길이
1992	902
1995	940
2000	898
2005	858
2006	932
2007	963
2008	940
2009	983

주: 상업도로는 제외함.

출처: 러시아 통계청

다섯 번째 변수인 정부정책과 FDI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부패인식지수(CPI)를 활용하여 러시아 FDI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FDI의 고려변수로서 정부정책의 요소 중 하나인 투명성은 직접투자를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 <표 13>에서 보듯이 러시아의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2000년부터 2007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국가순위에서 하위권에 지속적으로 머무르고 있어 부패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투명성의 결여는 FDI에 부정적(negative)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또한 투명성과 관련된 요소로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및 지하경제 등을 직접투자의 장애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다. 외자유치와 관련한 조세감면, 경제자치권, 외자유치 조건등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마피아의 개입으로 인한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그리고 탈세, GDP의 30-40%에 달하는 지하경제, 연간 약 120억 달러에 달하는 순 자본유출 등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는 러시아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한지 요소로 열악한 투자환경을 들 수 있다. 러시아는 아직까지 투자관련 법제의 미비로 투자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최근 2년간 외국인투자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투자는 아직 정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투자관련 법규와 제도가 후진적이고 인허가 취득 시 담당자 재량의 여지가 큰 점 등 행정의 비효율로 투자계획 입안 시 불필요한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원개발과 관련된 외국인투자를 규정하는 생산물분배법(PSA)<sup>16)</sup>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형태로 개정되었고, 통신 및 보험 등 서비스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등 외국인투자 여건상 많은 제한요소가 있다.

<표 13> 부패인식지수(CPI)로 본 러시아

연도	지수	순위	동일 국가군	브릭스(BRICs) 국가
2000	2.1	82/90	케냐	중국(3.1)/인도(2.8)/브라질(3.9)
2001	2.3	79/91	에콰도르, 파키스탄	중국(3.5)/인도(2.7)/브라질(4.0)
2002	2.7	71/102	코트디부아르, 혼두라스, 인도, 탄자니아, 짐바브웨	중국(3.5)/인도(2.7)/브라질(4.0)
2003	2.7	86/133	모잠비크	중국(3.4)/인도(2.8)/브라질(3.9)
2004	2.8	90/146	감비아, 인도, 말라위, 모잠비크, 네팔, 탄자니아	중국(3.4)/인도(2.8)/브라질(3.9)
2005	2.4	126/159	알바니아, 니제르, 시에라리온	중국(3.2)/인도(2.9)/브라질(3.7)
2006	2.5	121/163	베넌, 감비아, 가이아나, 혼두라스, 네팔, 필리핀, 르완다, 스와질란드	중국(3.3)/인도(3.3)/브라질(3.3)
2007	2.3	143/180	감비아, 인도네시아, 토고	중국(3.5)/인도(3.5)/브라질(3.5)

출처: 국제투명성기구 (T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현지경영 현황과 과제,』, 2010, 재인용

마지막으로 개방정도 변수와 FDI의 관계를 고찰한다. 이 관계의 고찰에는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수출액과 수입액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총 수출입을 GDP로 나누어 얻어진 값을 통하여 FDI장애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총 수출입액을 GDP로 나누어 [표 14]에서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결과에 의하면 2005년도에 0.445를 기록한 수치가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소폭 하락하였고, 2008년도에 거의 2005년도의 수치에 가까운 0.442를 기록하였다. 2009년도에는 하락폭이 커 0.384를 기록하였고 2010년도에 수출액과 수입액의 증가로 인하여 0.427로 수치가 증가하였다. 연도별 수치가 증감하며 변동하고 있으나,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 이는 개방정도가 호전되지 않았음을 뜻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개방정도는 FDI에 부정적(negative)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추정된다.

<표 14> 러시아의 연도별 수출액 및 수입액과 변수측정에 필요한 측정값

(단위: 년, 10억 달러)

연도	수출액	수입액	합계(수출액 + 수입액)	GDP	총 수출입/GDP
2005	241.5	98.7	340.2	763.7	0.445
2006	301.2	137.8	439	989.9	0.443
2007	351.9	199.8	551.7	1,299.7	0.424
2008	467.6	267.1	734.7	1,660.8	0.442
2009	301.7	167.3	469	1,222.7	0.384
2010	396.6	229.1	625.7	1,465.1	0.427

출처1: 연도별 수출액, 수입액, 러시아 통계청

출처2: 연도별 GDP, IMF

### III. 결론

러시아가 자유경제체제를 도입한지 약 20년이 흘렀다. 지금 러시아는 FDI에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투명성 결여, 관료주의 및 부정부패, 복잡한 법규 그리고 세제 등과 같은

구 소련경제의 잔재를 점차 털어내고 글로벌 국가경제의 운영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구나 2011년 12월 WTO의 가입은 러시아에 이런 투명성을 결여시키는 요소들을 더욱 빨리 개선시키고 다른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 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WTO 협정이 포괄하는 범위가 무역 및 투자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대 러시아 투자 사업에 어려움으로 여겨지고 있는 법률, 세제, 행정절차 등 사회질서와 관련한 사회간접자본의 미흡한 부분은 단기간 내에 해결되어 FDI규모를 빠르게 증대시키는데 한계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부분은 향후 러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 다른 국가와 상호경제협력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러시아의 OECD가입과 국제사회와 정치경제분야에서의 위상강화를 위한 노력에 비추어 볼 때,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수출 및 투자여건은 개선될 것이 확실하므로 한국의 러시아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을 기점으로 2010년부터 FDI규모가 하락한 이후, 아직까지 러시아의 FDI투자액이 증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앞에서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을 통해 러시아의 FDI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러시아는 직접 투자자에게 유용한 제도인 관세 및 법인세 인하,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FDI 환경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Brainard(1997)의 모형을 활용한 FDI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장애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는 러시아경제 발전의 장애요인이며, FDI를 통한 산업의 다각화를 어렵게 만드는 만큼, 개선되어야 할 장애요이다.

둘째, 임금의 가파른 상승은 회사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외국기업이 직접투자 시에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셋째, 인프라는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기반시설이므로, 현재 대도시에 집중된 인프라 시설은 국가의 지역별 고른 성장과 외국인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인프라 부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넷째, 금융은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피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자금의 원활한 순환은 FDI를 통한 진출기업에게 중요한 요소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과 개선을 통해 직접투자 외국기업에게 원활한 경영활동의 영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후진적인 금융시스템은 경제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각 사회부문에 만연한 부패의 개선을 통한 FDI투명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겠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다룬 Brainard(1997)의 모형을 통해 살펴본 FDI장애요인의 분석결과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FDI를 늘리기 위해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과제가 될 것이며, 한국에게는 러시아의 직접투자 이전에 대 러시아 FDI시에 반듯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 그러나 본고에서 분석을 통해서 얻은 장애요인 이외에도 많은 장애요인들이 FDI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장애요인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찾아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 1) CIA기준
- 2) CIA기준
- 3) 2012년도 IMF기준
- 4) 2012년도 IMF기준
- 5) BRICs란 방대한 인구와 자원을 배경으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4 개국을 일컫는 말이다. 이 용어는 미국의 투자은행인 Goldman Sachs와 Willson과 Puru-shothaman 이 2003년 10월에 발표한 투자전략보고서인 'Dreaming with BRICs: The Path to 2050'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 6) KOTRA, 『러시아의 해외투자 동향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2011.06, 7-8page
- 7)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6917640](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6917640), 검색일-2012.11.24
- 8)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6950226](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6950226), 검색일-2012.11.24
- 9) 자금을 융통하는 일로 다른 말로 융자라고도 한다. 파이낸싱은 자금대출과 거의 같은 뜻이나 대출 보다 조금 넓은 개념이다.
- 10)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 11)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 12) 상품수지는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무역수지와 동일한 개념이다.
- 13) 한국수출입은행, 러시아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10.09, 198page
- 14) 이재영·이순철·황지영·이종문,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현지경영 현황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12, 184-185page
- 이홍식·김혁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12, 272-273page
- 15) 부패인식지수(CPI)란 국제 민간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다. 1994년 조사하여 95년 최초로 발표했다. 세계은행(IBRD) 등 7개 기구가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를 취합하여 발표하며, 순위가 높을수록 공공부문의 부패 수준이 낮고, 상대적으로 청렴하다고 볼 수 있다.
- 16) 생산물분배협정은 지하자원의 사용과 투자활동에 관련되는 러시아연방의 입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채택되었으며, 생산물분배계약에 기초한 러시아 연방의 영토,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경계 내에서의 광물탐사, 개발에 대한 러시아인 또는 외국인 투자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기본적인 법 원칙을 정한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동희, 『러시아의 해외투자 동향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KOTRA, 2010.06
- 고안나,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정책·환경 변화 동향과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 2010.03
- 조양현, 『러시아 외국인투자 유입동향과 우리 기업의 투자전략』,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2.04
- 황상하, 『러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2.06
- 황상하, 『러시아 대선 이후의 경제정책 변화방향』,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2.03
- 한국수출입은행, 『러시아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10.09
- 한국수출입은행, 『러시아 투자환경과 투자사례』, 2005.07
- 한국수출입은행, 『러시아의 투자환경위험 평가보고서』, 2012.05
- 한국수출입은행, 『러시아의 투자환경위험 평가보고서』, 2010.10
- 농림수산식품부,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부분 투자 입지여건 및 타당성 분석: 나호트카 향을 중심으로』, 2010.06
- 김진홍·김진호, 『러시아의 WTO가입과 우리 지역의 대응 전략』, 한국은행 포항본부, 2012.05
- 허정욱, 『러시아의 WTO 가입 추진과정과 경제적 효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1.11
- 이재영·이순철·황지영·이종문,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현지경영 현황과 과제』, KIEP대외경제연구원, 2008.12
-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분석팀, 『2011년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 한국수출입은행, 2012.03
- 해외경제연구소 산업투자조사실,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 2012년 상반기』, 한국수출입은행, 2012.08
- 이홍식·김혁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12
- The Central Bank of The Russian Federation, 『Banking Supervision Report』, 2011
-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6917640](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6917640), 검색일-2012.11.24
-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6950226](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6950226), 검색일-2012.11.24
- 러시아 연방 통계청, 투자형태에 따른 외국인 투자의 자금유입 형태, [http://www.gks.ru/bgd/regl/b11\\_12/IssWWW.exe/stg/d02/24-08.htm](http://www.gks.ru/bgd/regl/b11_12/IssWWW.exe/stg/d02/24-08.htm)
- 러시아 연방 통계청, 경제활동 종류에 따른 외국인 투자의 자금유입 형태, [http://www.gks.ru/bgd/regl/b11\\_12/IssWWW.exe/stg/d02/24-09.htm](http://www.gks.ru/bgd/regl/b11_12/IssWWW.exe/stg/d02/24-09.htm)
- 러시아 중앙은행, [www.cbr.ru](http://www.cbr.ru)
- 러시아 연방 통계청, [www.gks.ru](http://www.gks.ru)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한국수출입은행, [http://keri.koreaexim.go.kr/keri/bbs/publ/view.jsp?no=5789&bbs\\_code\\_id=1311915013319&bbs\\_code\\_tp=BBS\\_5&code\\_tp=D02\\_124&code\\_tp\\_up=D02](http://keri.koreaexim.go.kr/keri/bbs/publ/view.jsp?no=5789&bbs_code_id=1311915013319&bbs_code_tp=BBS_5&code_tp=D02_124&code_tp_up=D02)
- IMF, <http://www.imf.org/external/index.htm>
- CIA, <https://www.cia.gov/>
- 국제노동기구, <http://www.ilo.org/global/lang--en/index.htm>
- 국제투명성기구, <http://www.transparency.org/>